

z



6월 정기 보고서



고마워 Kuala Lumpur YMCA,
반가워 Penang YMCA.

By Raonatti Malaysia 5th



KL PMY 리모델링

PMY 아이들이 방학한 틈을 타 우리는 Toy library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를 뜯어내고 물품 청소 및 정리 장난감 정리 벽에 동물 스티커 붙이기 그리고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문기 단원과 운무종 단원 해애 단원은 페인트 칠 당당을 감지은 단원은 코팅과 아이들 이름표 만들기 감진아 단원은 물품 목록 정리 및 방 팻말 꾸미기를 도맡아 했습니다. 2일 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들 방학이 끝나고 다시 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가 화 바꿨다거나 많이 변한건 없지만 훨씬 깨끗해지고 귀여워진 Toy library를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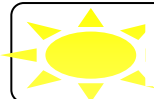


Korea culture day with deaf

처음 준비해보는 한국문화 워크숍이었다. 대상이 deaf여서 수화 진행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다행히 deaf스텝과 수화를 잘 하는 봉사자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국을 여러 번 여행해보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deaf 스텝 조세핀은 라온 아피를 통해 우리 같은 한국인을 많이 접해보아서인지 우리가 표현하고자하는 바를 잘 알고 수화로 전달해주었다. 30명정도 인원을 예상했으나 deaf 손님들은 10여명정도여서 아쉬웠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 소개ppt와 윷놀이, 공기, 딱지, 제기, 한국 게임, 한복입기, 태권무를 준비했었다. 한국게임을 4가지나 준비하여 할당된 시간은 많았으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번 이러한 행사를 준비할때는 게임의 수 보다 다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생각해봐야겠다. 시작시간도 지연되고 준비면에서 다소 허술한 부분도 있었으나 우리끼리 처음 준비해본 워크숍이어서 의미있게 다가왔다.





350PPM campaign (World Enviroment day)

한국에서 출국 하기 전부터 들었던 캠페인 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 했고 알고 있었던 만큼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KL 스태프들도 저희에게 환경의 날을 어떻게 준비 할거냐며 걱정도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KL 변화가 bukit bintang 에서 열리는 다른 환경 단체의 환경캠페인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것 같아 저희끼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민고민 끝에 결정 난 아이디어는 손바닥으로 350만들기! 처음 목적은 길거리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이 캠페인을 알리고 즐기는 것이었는데 길거리에서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비싸고



까다로우려 결국 YMCA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6월4일은 말레이시아 Agong(왕)의 생신이셔서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바로 다음날 그것도 일요일이라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YMCA에 사람이 없을까봐.. 예상대로 캠페인 당일 YMCA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youth club의 도움과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350ppm에 대해 널리 알릴수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못했던 것은 포스터 준비에만 열심이었지 정작 350ppm 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이해시키는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모두와 손바닥을 찍는 사람 모두가 환경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볼수있는 날이되었습니다.





Visit KL Y staff house

KL의 활동이 거의 끝날 무렵인 6월 4일에 우리는 조세핀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친구 에스더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 요리를 선보일 준비를 하기 위해 마트도 들렸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 단원들은 오자마자 요리 준비를 시작하였고, 남자단원들은 에스더와 조세핀과 함께 아파트에 비치된 수영장에서 단란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다 같이 음식 준비를 마무리하고 보니 음식을 많이도 했더랍니다.

파전, 김밥, 잡채, 떡볶이 그리고 막걸리! 우리모두 정말 맛있게, 배부리 먹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도 부족하지만 고맙게 먹어주었습니다. 즐겁기도 했지만 모두들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피곤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Penang YMCA,
지금 만나러 갑니다!



Penang Y와의 첫만남

아이린과 함께 페낭 YMCA에 도착한 우리는 스텝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메뉴는 스팀보트와 BBQ. 뷔페 식당이라 우리는 엄청나게 먹었다. 디저트 메뉴는 아이스크림. 옹과 윤무중 단원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5개, 4개씩 먹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두리안 농장을 방문했다. 우리는 두리안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질 좋고 값비싼 두리안을 먹을 수 있었다. 라일의 왕 두리안을 좋아하는 윤무중, 김진아 단원은 무척 행복한 하루였지만 나머지 단원에게는 두리안 냄새로 인하여 매우 피곤한 하루였다. 이후에는 국립공원과 페낭의 전통 바틱과 수공예를 하는 곳을 방문했다.



Deaf dinner party 준비

페낭 YMCA에 현재 PMY 아이들이 2명밖에 없어서 문기, 김지은 단원은 첫주 PMY 아이들 교육을 맡고, 윤무중, 김진아, 해애연 단원은 이후에 있는 deaf dinner party를 위한 준비를 했다. 주로 한 일은 가위질과 선물포장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치면서 하느라 재밌었으나, 1주 동안 반복된 작업에 지루한 면도 있었다. 더구나 deaf dinner party는 우리가 페낭을 떠난 이후 행사라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의욕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면 라온아피 말레이시아 6기 단원들이 수월하게 행사를 진행할거라는데 의의를 둔다.





MPPP campaign



6월 18일 오전 MPPP캠페인이 있었다. MPPP는 폐낭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정화캠페인이다. 폐낭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모여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폐낭Y스텝들과, Youth Club과 함께 참가했다. 한곳에 모여 구역을 배정받고, 그곳으로 이동한 다음 길의 쓰레기도 줍고 잡초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뜨거운 햇볕아래 허리숙여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일이 힘들고 고된일기도 했지만 지나간 곳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부듯했다! 캠페인활동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활동이후에는 점심제공과 행운권추첨으로 우리를 더욱 힘나게하였다. 그리고 특히 함께 활동하며 Youth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



폐낭 PMY 아이들 교육

9살 Nelson, 12살 qi zhen 이 둘은 우리가 폐낭 YMCA에서 만난 첫 아이들이다. 이 둘은 deaf로 학교가 끝나면 폐낭 YMCA에서 방과후 활동을 한다. 우리는 약 2주동안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했다. 우리는 2시~5시까지 아이들을 지도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의 수화를 현지 스텝인 메이메이나 라헬라에게 배웠다.

그리고 나서 서툰지만 수화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솔직히 내가 설명하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힘들것이다. 나역시도 학생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설명을 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우리야말로 장애, 국경, 언어, 나이, 성별을 초월하는 마음의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Nelson과 qi zhen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Join Penana Y staff 파티

Penang Y에서 1년에 한번 열린다는 스텝 파티! 이번에는 특별히 5기를 위해서 바닷가 펜션에서 열렸네요. 사실 저희를 위해서는 아니고 이번이 처음 밖에서 열리는 스텝 파티라 스텝과 친해질 기회도 주고 Y 안에서만 있던 저희에게 마치 여행을 가는듯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펜션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 너무 예뻐합니다 저희는 일찍 가서 음식 재료 손질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와중에 김지는 단원과 김진아 단원이 아주 큰 실수를 연달아 하는 바람에 아주 소심해졌답니다. 김지는 단원은 큰 불에 담긴 음식을 그대로 다같이 퍼먹어서 한 소리를 듣고 김진아 단원은 식수로 사용될 끓인 물을 그대로 모두 밖에 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잘 넘어가고 저녁이 될때쯤 모두 밖에 모여 모래사장서 BBQ를 했습니다. 이날 먹었던 치킨은 이제껏 먹었던 치킨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옥수수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새우튀김도 튀긴 치킨도 다같이 먹는 와인도 아주아주 배터지게 먹고 파도소리도 들으면서 기분좋은 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가고 저희와 MS ng 과 Jess jem만이 남아 펜션에서 밤을 샐었습니다. 마치 멀리 여행을 떠나온 기분에 맛있는 음식에 스텝들과 함께한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Join Penana Y staff 파티

우리가 페낭Y에 와서 처음 일 할때부터 준비했었던 점분세일. 6월 26일. 아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지금까지 준비해두었던 물건들을 YMCA홀에 옮겼습니다. 물론 F.O.D 친구들도 함께 말이죠. 시작은 10시부터였지만 그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분씩, 두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여든 F.O.D 친구들 덕분에 일은 점점 수월해졌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점심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12시 전에 갔던 사람이 교통체증 때문에 한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모두들 배고픔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맛있죠. 역시나 힘든 일 뒤에 기다렸던 밥은 별 것 아닌 것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번 점분세일은 별로 성공적으로 끝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번 점분세일에는 1000링깃 넘게 벌었다던데 이번엔 300링깃 아리네요. 아쉬움이 남는 날이었습니다. 다음기수가 다음 점분세일때 더 잘 팔아주겠죠?





Malaysia 5th, Thailand 2nd 만나다 !

6월 27일 2기 태국팀 선하언니가 여행하는 중에 폐낭에 방문을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면접이후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라 약간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첫 만남을 가졌지만, 금새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니가 방문한 덕분에 ms.ong은 배까지 타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우리는 들떠있었고 덕분에 활동도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았다^^ 저녁식사를 하는동안, 이동 중간중간 그동안 궁금했던 라온아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식사 이후 언니와 ms.ong의 딸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끼리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도보내고 오랜만에 활동에서 벗어나 놀수있었다. 갑작스러운 라온아피 선배의 방문으로 처음에는 떨떠름 하기도 했지만 언니와의 만남으로 이곳에서의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더 즐기며 잘보내야겠다는 생각도, 곧 돌아갈 한국에서의 활동도 기대를 하게되었다.

